3-10-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잠언 11:30
말씀제목: **사람이 태어나서 현명하게 되는 두 가지 일**

일반적으로 사람이 현명하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이성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사람은 철학자나 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를 philosopher 라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로는 부처와 공자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가 한 말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하시 야소래 오도 무유 지등야**"
언제든지 예수라는사람이 세상에 오면 자신의 가르침은 마치 기름 없는 등잔과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으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공자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할 윤리 도덕을 가르쳤지만 그 역시 그 이상의 어떤 것,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분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의로워짐을 통해 성령을 받아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진 사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3-14)

그렇습니다! 세상 철학이나 종교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지혜와 유익을 준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저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옛날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짐을 헐고 짓는 일에만 열중하게 하여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여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생명을 받아 생명나무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혼들을 이겨오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혼들을 이겨오는 현명한 종들이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하여 오래 전에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단 12:2-3)

하나님께서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 환란 시대에는 십사만 사천의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하여 왕국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 또한 현명한 종들이 받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대 환란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전하게되는 복음에 대하여 시편기자가 증거했습니다:

"이방 가운데에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시 96:10;97:1)

혼들을 이겨온다는것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사탄의 손 아래 묶여있는 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l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 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엡 6:10-19)

아멘! 할렐루야!